



**여론브리핑 제64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8차**  
(2009. 11. 12)

**기대 못 미치는 미 · 중 소프트파워 : 반쪽 리더십 극복해야**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 오피니언(WPO)은 세계 주요현안과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계여론조사(World Public Opinion survey)를 매년 실시한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종 성대)과 매일경제신문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2009년 전체조사는 4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24국에서 진행되었다. 이번에 발표하는 “미중 소프트파워 인식” 에 대한 분석은 20개국에서 실시한 결과에 기초한다. 조사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다. 한국 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가 담당했다. 주요 연구주제 및 조사 국가는 다음과 같다.

■ 2009 세계여론조사 주제

- (1) 세계리더/ 아시아 리더십 평가(6.29 GMT 21:00)
- (2) 오바마 시대, 미국 헤게모니의 기회와 도전(7.7 GMT 13:00)
- (3) 세계경제위기 진단과 해법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7.21 GMT 21:00)
- (4) 아프간 주둔 NATO 군 임무에 대한 인식 (7.23 GMT 21:00)
- (5) 지구온난화 인식과 각 국 정부 대책 평가 (7.28 GMT 21:00)
- (6) 의회의 대표성과 정치적 관용으로 본 민주주의 인식과 평가 (9.15 GMT 15:00)
- (7) 국제규범인가? 국가이익 우선인가? (11.3. GMT 15:00)
- (8) 미중 소프트파워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11.11 GMT 21:00)**

\* 괄호 안은 보도자료 공개(Embargo) 시점

■ 여론브리핑 64호 목차... 대표집필 : 정한울 · 정원철

- 1. 슈퍼파워 G2의 소프트파워 - 반쪽 리더십 (서구-친미/ 중동 및 동구-친중 뚜렷)
- 2. 미중 소프트파워의 취약요인  
미국과 중국 기후변화 대처 불신 커/ 미국 군사행동-중국의 인권침해가 평판 악화

■ WPO 2009 세계여론조사 참여 24개 국가 중 20개국 조사결과

미주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유럽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중동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한국

■ 한국조사 개요

조사일시      6월 5일  
 모 집 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600명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4.1%  
 응 답 율      12.9%  
 조사방법      전화조사(CATI)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WPO 국제현안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중(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이근수(EAI 거버넌스 연구팀 팀장)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mailto: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mailto: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mailto:cskim@hrc.co.kr))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은?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은 미국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대표: Steven Kull 교수)이 주관하고 세계 주요국가의 연구조사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여론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매년 1~2회 20여국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결과를 주요 언론 및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 원장: 이숙중)이 연구협력기관으로 매일경제가 한국 측 보도기관으로 참여한다.



## 미중 정상회담 앞둔 미중 소프트파워 평가 세계여론이 본 슈퍼파워 G2의 소프트파워 - 반쪽 리더십 한계

정한울 · 정원철

전 세계가 경제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도성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북핵문제 등에서 외교역량을 과시하며 부상한 중국은 G-2로 불리며 일약 미국과 세계질서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여전히 군사력, 경제력 등 하드파워에서는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두 번의 전쟁과 경제위기로 단독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힘이 부친다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미중 패권경쟁의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늘고 있다.

향후 미중 양국 간의 협력과 경쟁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는 세계의 ‘민심’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의 힘만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점은 전임 부시행정부 동안 자명해졌다. 아직 하드파워 경쟁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중국이 소프트파워 강화에 힘 쏟으면서 양국간 소프트파워 경쟁도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15일부터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새로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이후 미국과 중국이 이후 어떻게 양국관계와 국제 문제를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간 무역 현안 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핵 문제, 국제 개발 이슈, 기후변화 문제에 이르는 굵직한 글로벌 이슈가 다뤄질 정상회담에서 양 슈퍼파워간 협력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투와 견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회담이 끝나면 12월에는 전지구적 이슈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기후변화 문제에 새로운 기후변화조약 체결을 통해 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협약이 예정되어 있다. 세계 제1, 2위 이산화탄소배출국가인 중국과 미국 중 누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지도 관심사다.

미중 소프트파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메릴랜드대 월드퍼블릭오피니언 20개국 여론조사는 미중 양국의 소프트파워 경쟁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미국 메릴랜드대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 등과 함께 세계 2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체 응답자 수는 20,349명이고 표집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pm 3\sim 4\%$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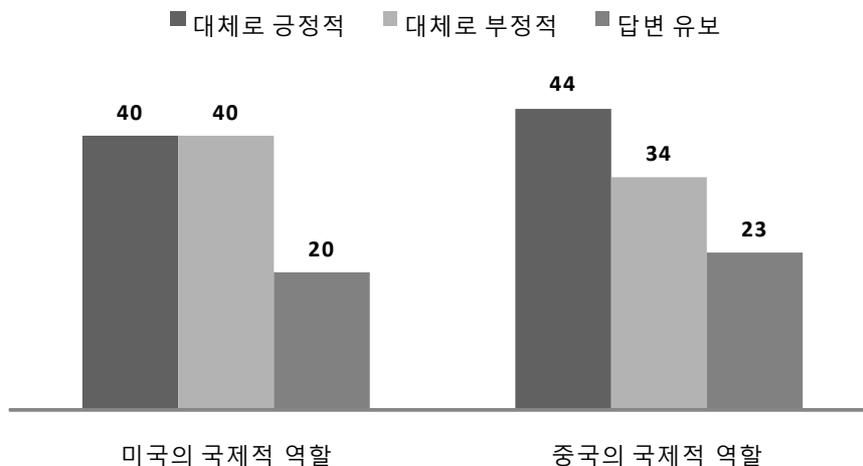
■ G2, 미국과 중국 하드파워에 못 미치는 소프트파워 - 세계 여론 미온적

- 20개국 여론, G2 “국제적 역할 긍정적이다” 미국 40%, 중국 44% 그쳐
- 서구-친미, 중동/동구-친중 세계여론 반분 - 반쪽 리더십에 그쳐

군사력, 경제력, 정치적 파워 등 강제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하드파워와 달리 다른 나라의 자발적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인 소프트파워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이나 다른 나라 국민들의 호감을 주는 외교노선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미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측정하기 위해 이들 나라가 국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20개국에 그 국제적 평판을 조사했다.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국제사회의 평판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40%,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40%로 팽팽했고, 20%는 응답을 유보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44%, 부정적인 평가가 34%, 22%가 답변을 유보했다. 중국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나은 상태이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긍정적 평가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일방주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자협력 외교를 강조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대한 세계의 여론은 우호적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과 하드파워 경쟁 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하는 중국 역시 아직 글로벌 리더로서 인정받는 수준은 아니다. 한편, 유보한 답변이 높은 것은 국제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적거나 정보가 부족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1]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20개국 응답 평균 (단위 : %)





## ■ 미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 반쪽 리더십 우려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 친미 성향, 일부 회교/구소련 국가 = 친중 성향 갈려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각국의 긍정적인 평가는 일부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서구 유럽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중동 및 이슬람 국가들에서 냉담한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58%), 프랑스(52%), 폴란드(51%), 독일(44%)과 같은 서구 OECD 국가에서 미국에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다. 반면 이라크(23%), 터키(16%), 이집트(15%) 등의 중동의 회교 국가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지역별로는 미국 주도의 정치, 경제적 원조에 의존도가 큰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미국에 우호적이었다. 케냐 국민의 81%, 나이지리아 국민의 70%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긍정적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68%)과 인도(47%)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이 높았고, 회교국가인 인도네시아(32%), 파키스탄(10%)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중동 및 구공산권 국가들의 지지를 받았다. 미국(33%)을 비롯한 프랑스(26%), 폴란드(25%), 독일(21%) 등 유럽 선진국에서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은 반면, 아제르바이젠(52%), 이집트(42%)같은 일부 중동국가나 러시아(44%) 등에서는 높았다. 특히 미국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다. 케냐에서 76%, 나이지리아에서도 75%가 긍정적이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중국의 자원외교의 성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89%), 한국(54%)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과반수를 넘었지만, 인도(39%), 인도네시아(38%) 등에서는 이에 못 미쳐 중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중동국가 중에서도 이라크(39%), 터키(22%)의 경우 미국에 대해서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냉담한 평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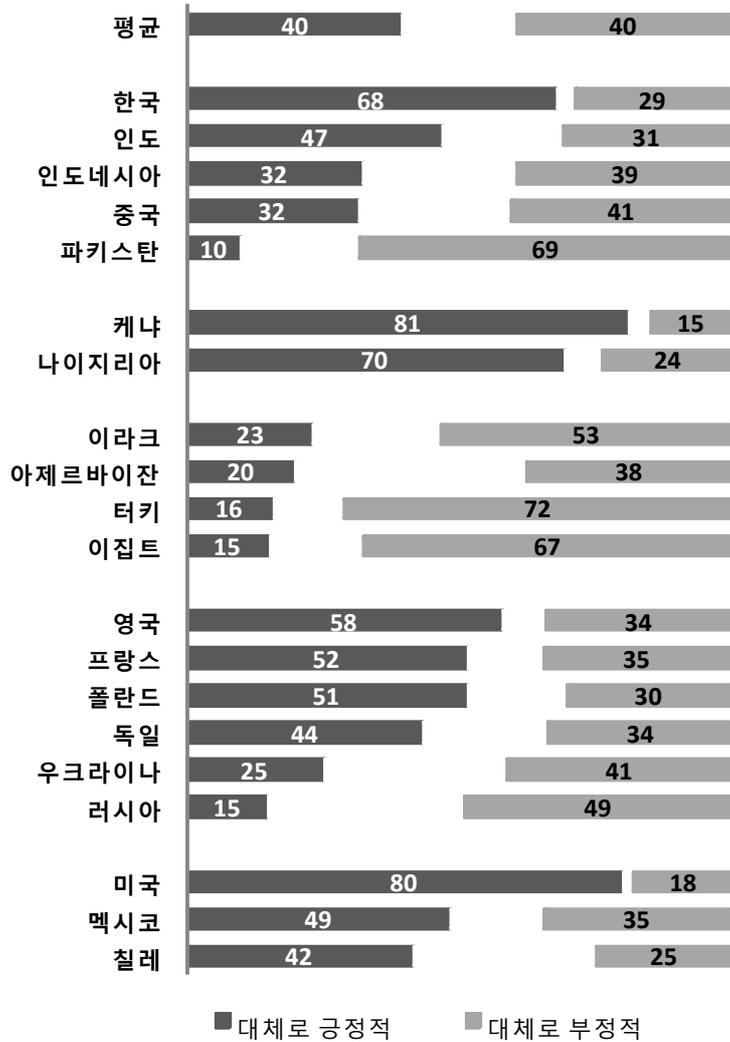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서구 유럽국가들은 미국에 우호적인 '친미반중성향'의 여론을, 일부 중동/ 구소연방 국가들은 '친중성향'의 여론이 강해 미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라크, 터키나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인도 처럼 아예 미국과 중국 모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나라도 적지 않았다. 결국 하드파워 차원에서는 초강대국으로 분류되는 G2지만 소프트파워 차원에서는 글로벌 초강대국이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일부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들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반쪽 리더십에 불과했다.

세계유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이나 새롭게 경쟁상대로 떠오른 중국 공히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는 지역과 국



가를 끌어 안아야 할 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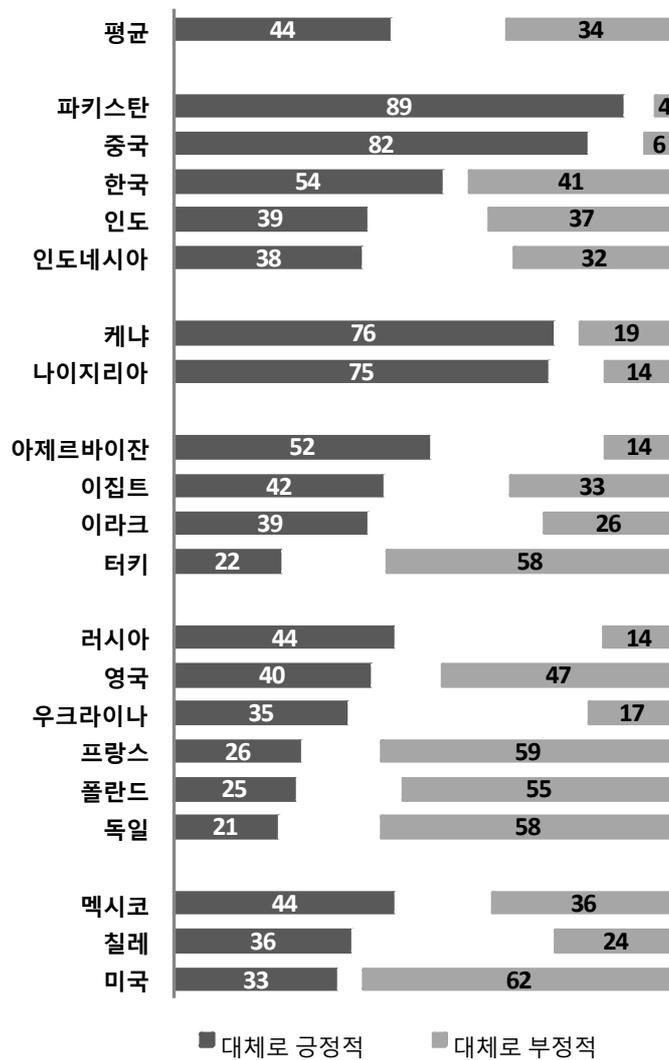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가운데 공란은 답변 유보



[그림 3] 중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가운데 공란은 답변 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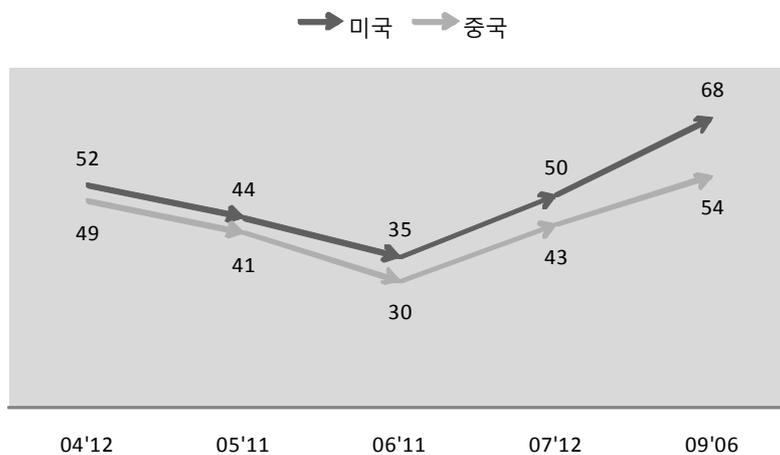
- 한국은 G2 모두 긍정적 평가 과반 넘어 : 미국 긍정평가 68%, 중국 긍정평가 54%**  
 2002년 촛불정국으로 고조된 반미성향 참여정부 중기 이후 크게 누그러져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 평판은 서로 비례, 미국 대 중국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편 미국과 중국 모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에 우호적인 여론을 보여주는 나라는 예외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역할에 보다 높은 점수(68%)를 주고는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54%)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 우호적 여론이 강한 것은 정치안보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 경제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의 산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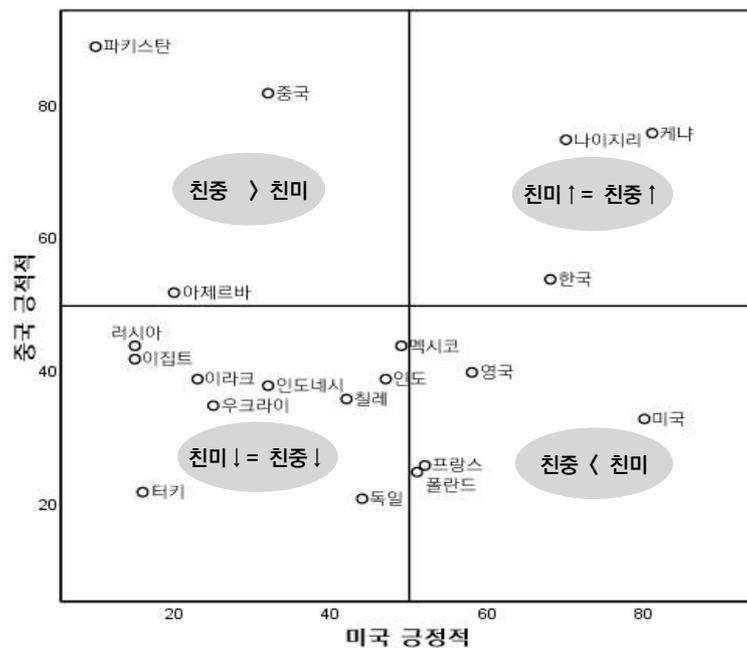


사실 한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온 결과 동반상승, 동반하락을 거듭해왔다.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악화되던 미국에 대한 여론이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부시 2기 행정부에서 일방주의 외교가 한풀 꺾이는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급증했고, 오바마 행정부 등장으로 급증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04년 동북공정 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악화되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이 가시화되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시장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면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4] 한국인이 본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 변화(%)



[그림5] 미국과 중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각 나라 긍정적 평가비율에 따른 인식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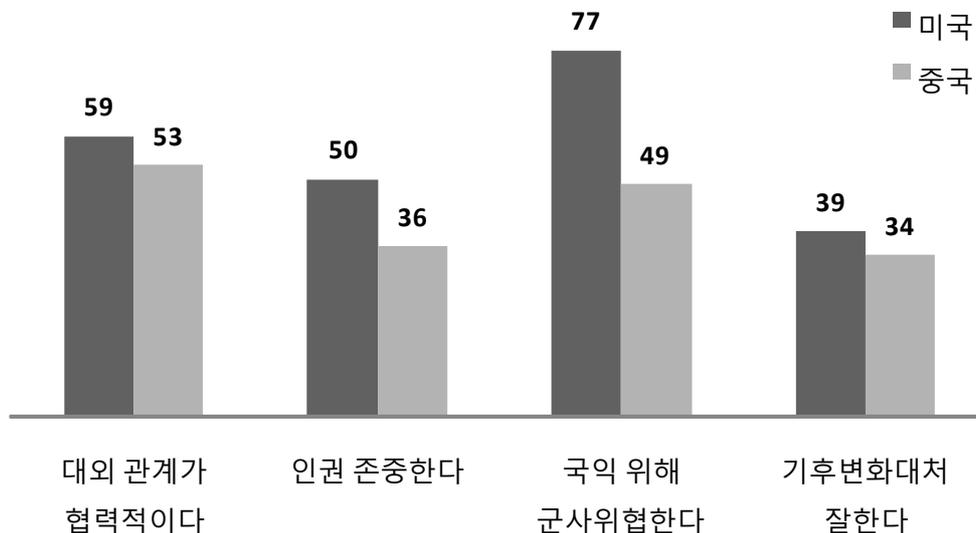


## 20개국이 본 주요 현안별 미중 리더십 비교

- 미중 모두 협력적인 외교 이미지 구축은 성공적
- 기후변화 대처엔 미중 모두 낙제점 “기후변화 대처 잘한다” 미국 39%, 중국 34%
- 미국은 군사적 위협 이미지가, 중국은 인권침해의 이미지가 국제 평판 깎아 먹어

정원철 · 정한울

[그림1] 20개국이 평가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미중 리더십 평가



### ■ 미중 모두 협력적인 외교 이미지 구축은 성공적

- 다른 나라와 관계 협력적인가? 미국 59%, 중국 53%의 긍정평가 받아

조사결과 미국과 중국 공히 대외정책에서 패권적 이미지 대신 협력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개국 전체 응답자의 59%로부터 미국의 대외관계가 협력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중국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넘는 20개국에서 평균 53%가 패권적 이미지 대신 협력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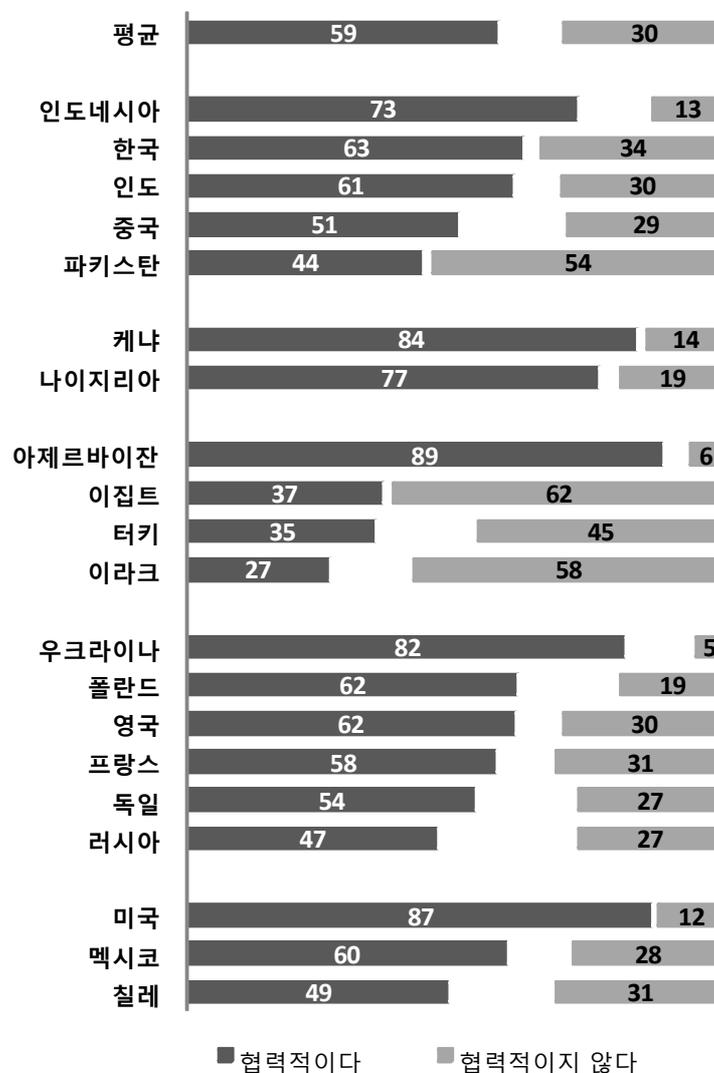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강한 케냐(83%)와 나이지리아(77%)는 물론, 영국(62%), 프랑스(58%), 독일(54%) 등 서구 우방국과 인도네시아(73%), 한국(63%), 인도(61%)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협력적인 대외관계를 맺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중동의 이집트(37%), 터키(35%), 이라크(27%)로부터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대이슬람 화해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지만 아직 중동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우는 아제르바이잔(89%), 우크라이나(81%), 러시아(73%)와 같은 구소연방 국가들이나 이집트(56%), 이라크(52%)같은 이슬람국가들에서 과반수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파키스탄(94%), 인도네시아(79%), 인도(50%) 등 주변 아시아 국가 국민들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국(34%), 영국(26%), 프랑스(26%), 독일(21%) 등 서방 선진국들에 서는 중국의 협력외교 노선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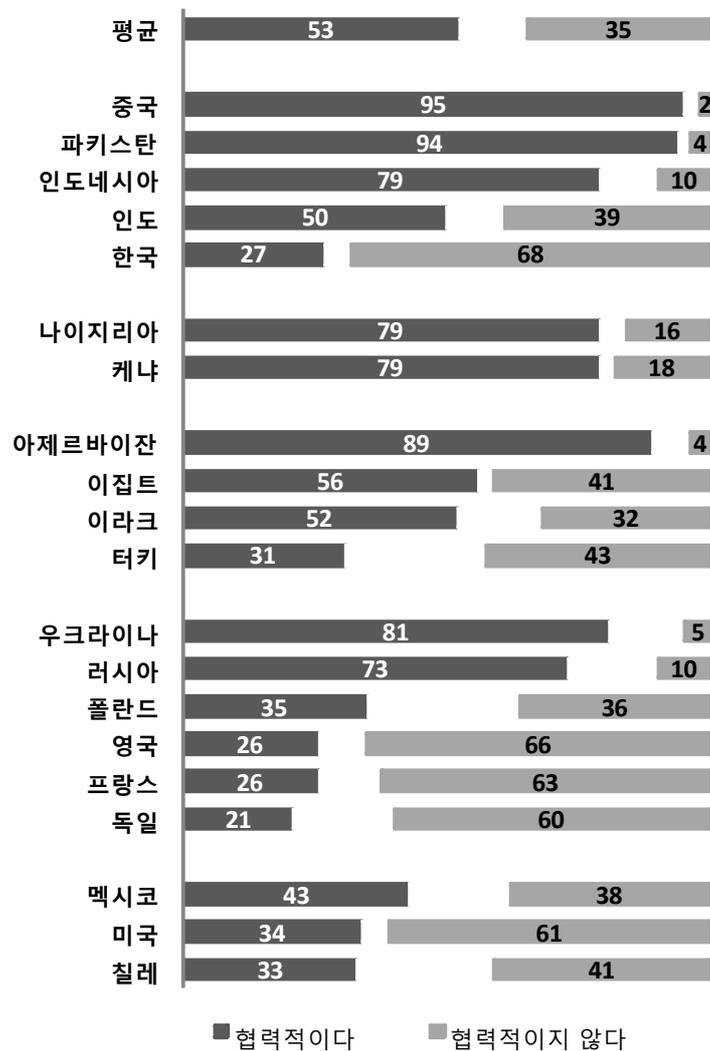
[그림 2] 미국의 대외 관계 평가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그림3] 중국의 대외관계 평가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중국 결과는 제외

■ 기후변화 대처엔 미중 모두 불신 받아 “기후변화대처 잘한다” 미국 39%, 중국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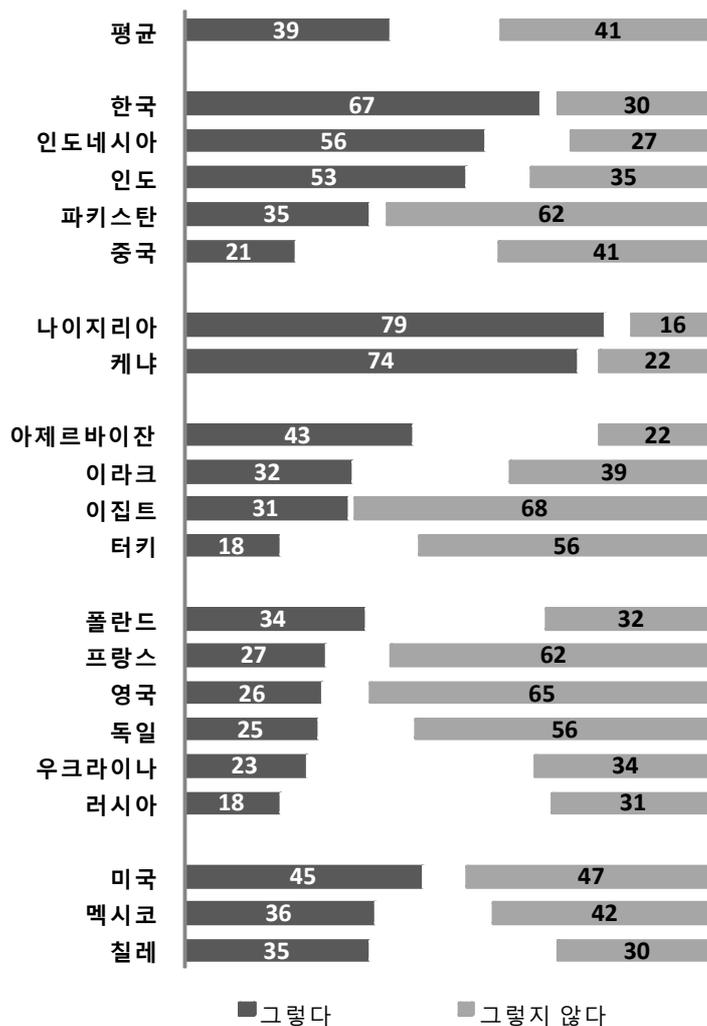
그러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위해 세계 192개국이 모이는 12월 코펜하겐 국제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태도변화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세계 여론은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대해 불신이 적지 않았다.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20개국 평균 39%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41%는 부정적이라고 답하고, 응답을 유보한 비율도 21%나 되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보다 다소 낮은 34%만이 중국의 기후변화 대처 방식을 수용한 반면, 42%는 반대 입장을, 23%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국 1, 2위를 다투는 양국이 그 동안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케냐, 나이지리아 같은 친미성향의 여론이 강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한국(67%), 인도네시아(56%), 인도(53%)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기후변화대처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기후변화 대처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의 리더십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프랑스(27%), 영국(26%), 독일(25%) 등 서구 선진국에서조차 냉담한 반응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친중여론이 압도적인 아프리카 국가들과 파키스탄(93%)이나 같은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55%), 인도(44%) 등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을 뿐 다른 국가들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독일(13%), 프랑스(11%), 영국(10%) 등 서구 선진국에서 특히 냉담한 반응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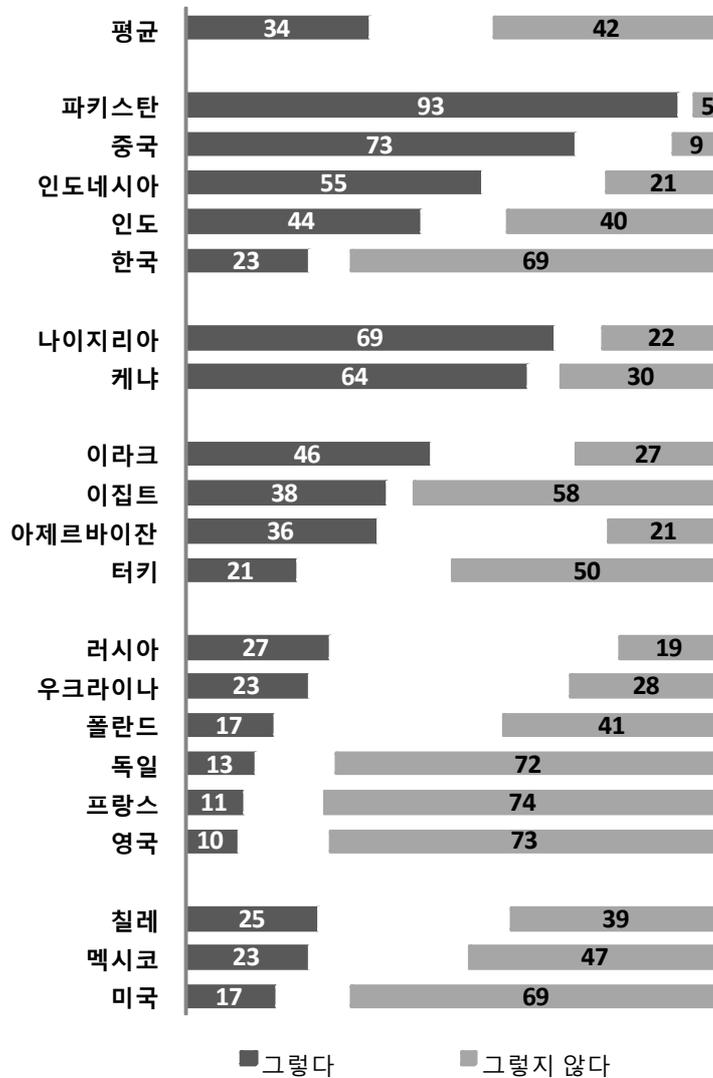
[그림4] 기후변화 문제 제대로 대응한다 : 미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그림5] 기후변화 문제 제대로 대응한다 : 중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중국 결과는 제외

■ 미국은 군사적 위협 이미지가, 중국은 인권침해의 이미지가 국가 평판 깎아 먹어

- “미국 자국이익 위해 군사 위협 사용” 77%가 동의, “중국 군사적 위협 사용”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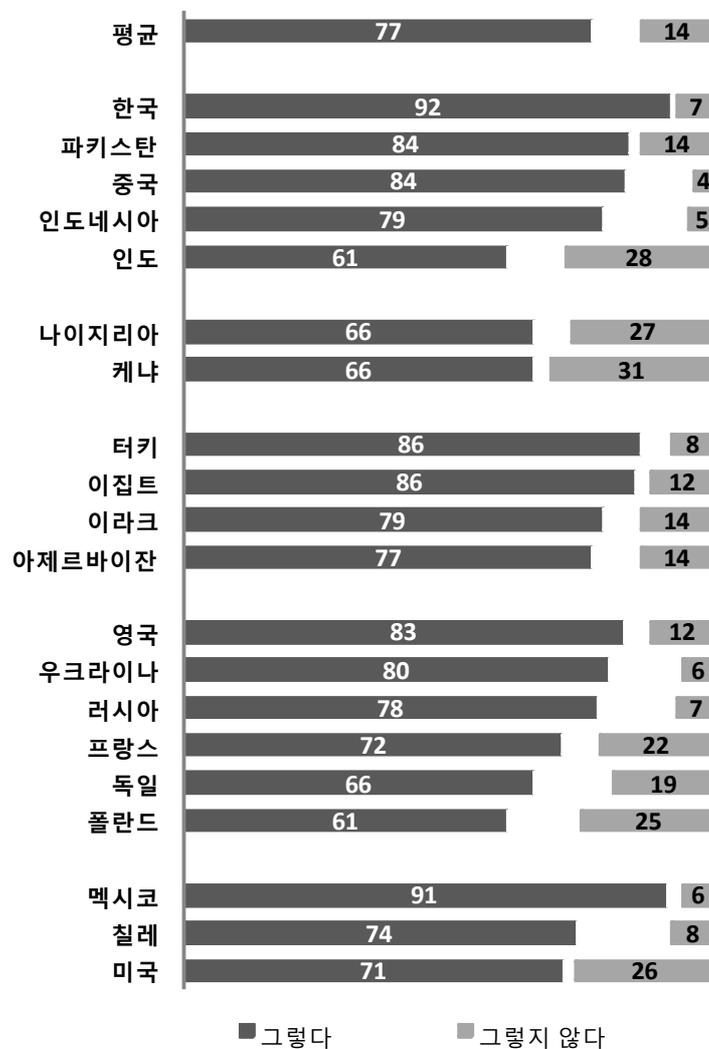
조사결과, 부시행정부 시기 두 차례 치른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오바마 등장 이후에도 미국의 국제평판에 여전히 큰 부담요인으로 남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국 응답자의 무려 77%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군사적 위협을 감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이라크(79%), 터키(86%), 이집트(86%)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물론 함께 전쟁을 이끈 영국(83%)이나 프랑스(72%), 독일(66%) 등의 서구 우방국 국민들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중반기부터 반미여론이 한풀 꺾인 한국에서는 무려 92%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것도 특징적이다.

반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 사용 가능성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75%)이나 영국(59%), 독일(58%), 프랑스(53%)의 서방국가들이나 칠레(65%), 멕시코(58%)와 같은 일부 남미 국가나 한국(75%), 인도(54%)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만 과반수 이상이 중국의 군사위협가능성을 지적했을 뿐 다른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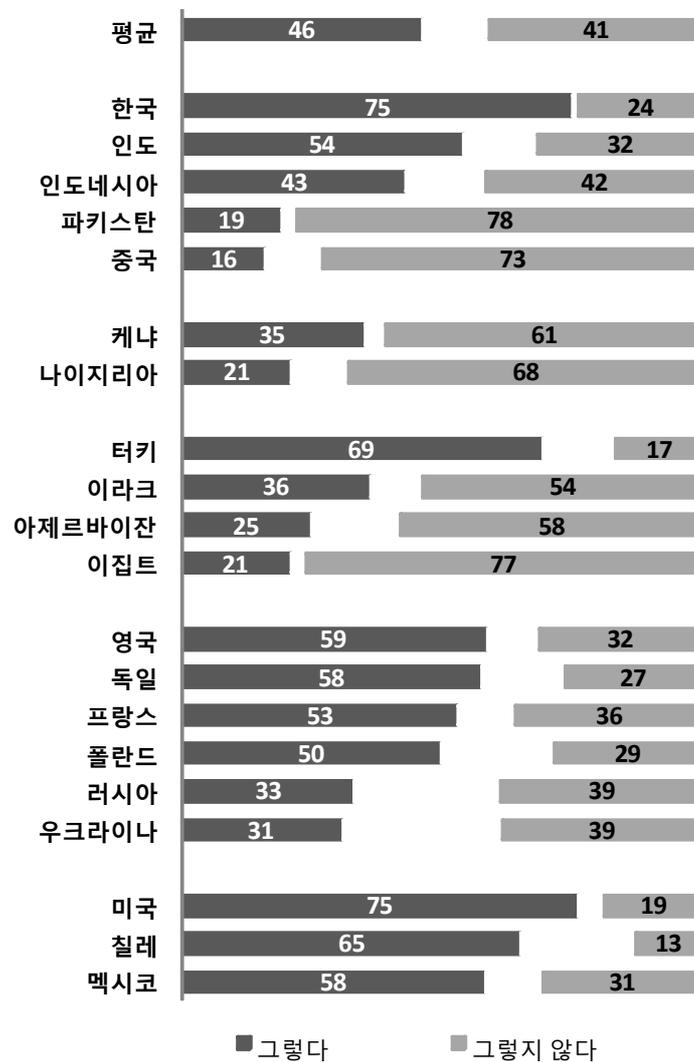
[그림6] 자국 이익 위해 군사적 위협 사용한다 : 미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그림7] 자국 이익 위해 군사력을 이용한다 : 중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중국 결과는 제외

### ■ 인권외교에선 미국이 우위

- “미국 인권 존중 한다” 50%가 동의 vs “중국은 인권 존중 한다” 36%만 동의

인권 분야에서의 국제평판은 미국에게는 강점으로, 중국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사결과 미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20개국에서 평균 50%가 이에 동의했다.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8%에 그쳤다. 반면 중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은 36%이고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5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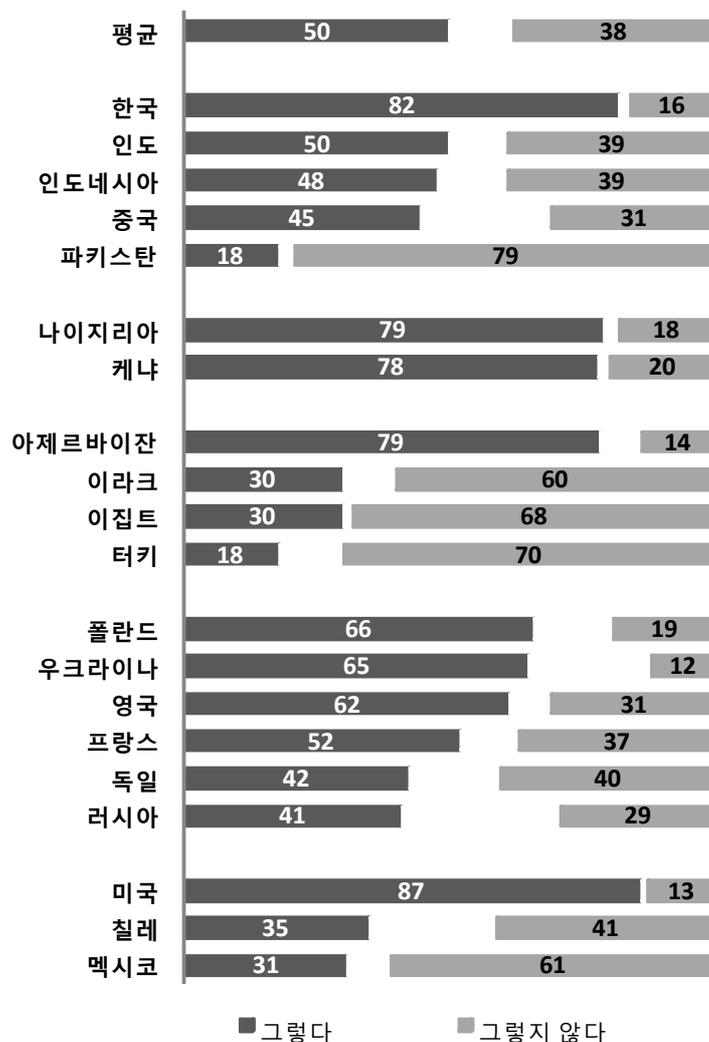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미국(87%)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82%로 가장 높았다. 다른 외교현안에서 나타난 응답패턴과 마찬가지로 영국(66%),



프랑스(52%)등의 서구 우방국과 케냐(78%), 나이지리아(79%)에서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높았다. 반미성향의 여론이 강한 파키스탄(18%)과 터키(18%), 이집트(30%), 이라크(30%) 등 이슬람 국가들, 칠레(35%)와 멕시코(31%) 등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미국의 인권외교에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미국에 냉담한 여론이 강한 아제르바이잔(79%)이나 우크라이나(65%) 등 구 소련방에서 독립한 신생국에서 미국의 인권존중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다는 것이 주목할 특징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터키를 제외한 이슬람 국가들에게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우호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나 아시아에서는 한국,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에서 중국 인권정책에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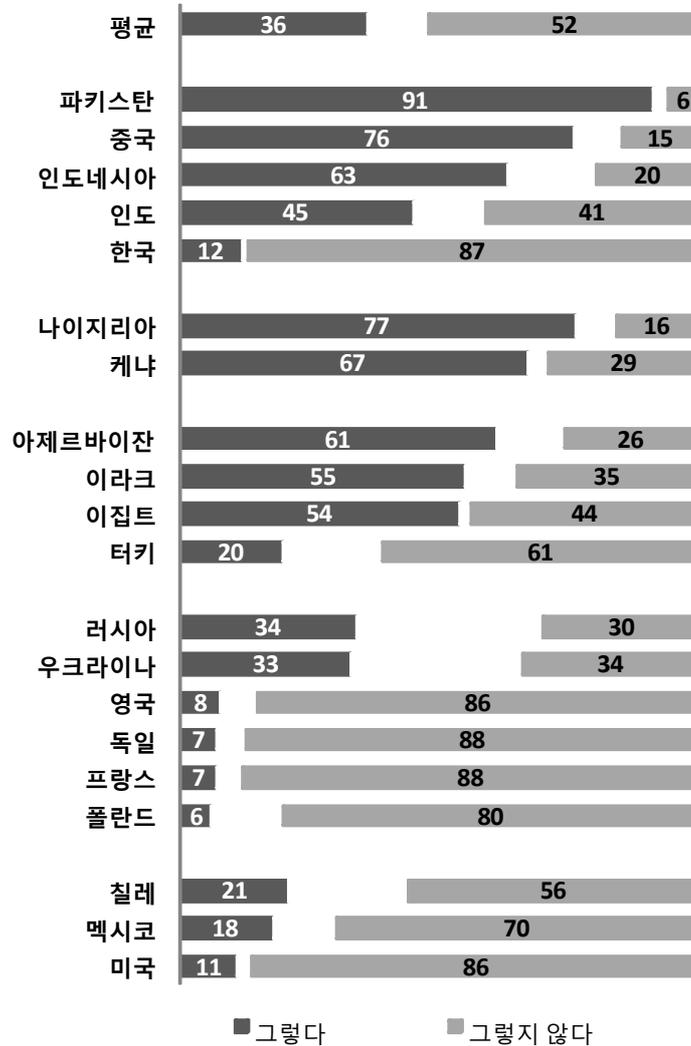
[그림 8] 인권 존중 : 미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미국 결과는 제외



[그림 9] 인권 존중 : 중국 (단위 : %)



주 : 평균값에서 중국 결과는 제외

#### ■ 미중 소프트파워 전략의 시사점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리더십 보여야 진정한 G2  
미국은 군사적 일방주의 이미지 씻고, 대이슬람 공공외교 강화해야  
중국인 인권침해 이미지 극복을 통한 서방 외교 강화에 주력

미국과 중국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질서의 안정과 변화의 쌍두마차로 떠오르고 있지만 양국의 하드파워에 비해 세계 각국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는 소프트파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20개국 국제여론조사 결과는 물리적인 강제력만으로 강대국들이 세계를 좌우하는 시대를 넘어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간 외교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이끌어낼 매력외교, 공공외교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미국은 서방세계 및 한국과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만 그 리더십에 우호적인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반미여론이 강한 중동과 아시아의 이슬람국가들이나 구 소연방 국가들의 국민들에게서만 인정받고 있는 반쪽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대이슬람 화해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위한 보다 과감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그 동안 아시아 주변국이나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집중하는 소프트파워 전략을 취해왔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서구 선진국의 시각에서도 신뢰와 호감을 줄 수 있는 대서방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절실하다는 점이 자명하다.

영역별로 보면 미중 양국은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 보여야 반쪽 리더십에서 벗어나 하드파워에 걸맞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평판을 쌓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두 차례 전쟁에서 형성된 군사적 일방주의 이미지를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등장이후 국제적으로 형성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소프트파워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일방주의의 이미지를 어떻게 빨리 극복해내는지가 오바마 외교정책의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불안정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상황은 파병된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파병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적 일방주의의 이미지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딜레마다.

한편 중국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일당체제와 소수민족 통제과정에서 나타난 강압정책이 중국 정치체제와 외교정책의 정당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서구의 인권가치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중국식 인권의 정당성을 강조해왔지만, 서구의 시각에서 볼 때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13억 거대 중국시장과 축적된 달러의 힘이 아프리카 신생국 들에서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덮을 수 있지만 경제력만으로는 오랜 민주주의와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럽시장이나 한국과 같이 아시아의 중견국가에서 중국에 대해 커지는 경계감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경제적 매력은 충분히 입증한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중국식 정치사회체제의 매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G2로 부상한 중국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미중 외교정책 평가

